



IMF 脫出 3大 焦點 注力 緊要 經濟回生 汎國民 總合 運動을

江原大學校 製紙工學科
教授·農學博士 趙炳默

칼럼筆陣

- 趙炳默 (강원대학교 교수·농학박사) 22·25 號
- 安憲榮 (본지 편집인·한국포장개발연구원 정책위원장) 23·26 號
- 尹文奎 (순천향대학교 교수·경영학 박사) 21·24 號

1. IMF 認識 가볍게 봐선 안되

IMF 한파가 몰아치기 시작한지도 어언 반년, 경제가 깊은 나락으로 곤두박질하는 양상이다.

한국은행은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18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3.8%의 낮은 성장률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이는 당초 정부가 IMF와 합의한 목표 성장률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실업률도 6.7%로 높아져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메는 노숙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5월들어 대기업의 무더기 정리해고까지 예고되면서 대량 실업과 경기침체의 불안감이 가시질 않아 안타깝다.

겨우 다급한 외환위기의 불길 잡아가는 이 시점에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까지 강도높게 진행된다면 자못 그 여파가 심각하지 않을가 염려된다.

어쩌다 우리경제가 이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어이없을 뿐이다.

그러나 IMF 발생자체의 현상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IMF 사태 인식을 대수롭지 않게 경시하는 자세가 더 큰 문제다. 정부, 국민 모두 마음자세부터 단단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IMF 對應策은 綜合·集中·迅速해야

이같이 어두운 경제전망은 어느 정도 예견했던 것이긴 하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의 일이다.

상당기간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기 어렵고 그 파장이 생각보다 클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중압과 저성장애 자본이 영세하고 기업구조가 취약한 골판지포장 업계로서 감내하기엔 한계가 있게 된다.

그것은 포장사용 전 산업의 불황 국면에 있어서는 산업연관도가 높은 골판지포장산업으로서는 고비용, 저성장의 불황국면이 주는 영향이 그 어느 업계보다도 가중되는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골판지포장업계에서는 무포장 농산물의 포장화와 포장외의 신 수요 개척에 주력하여 IMF 조기탈출 전략을 추천하고 있다.

사면초가의 이 현실을 우리 산업이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할지 정말 비상한 대책이 절실하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방만하고 비능률적인 기업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하루 빨리 전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실기업의 매각이나 합병 등 구조개선은 어쩌면 피할 수 없이 겪어야할 대세인지도 모른다.

결국 경쟁력 강화만이 이 난국을 헤쳐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물론, 신기술 개발로 제품을 고부가가치화해야 하

며, 그리고 새로운 수요창출과 신용도 향상에 끊임없는 업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채산성 위주의 철두철미한 기업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저가, 대량생산의 확대지향적 산업생산방식을 벗어나 특성화, 다양화, 차별화를 지향하는 유연생산방식으로 인적, 물적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

위기는 대처하기에 따라 기회일 수도 있다.

어려운 때 일수록 사람을 아껴 고급인력의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철저한 직업 재교육으로 모든 인력을 정예화하고 직능별로 전문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산학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로 선진기술의 도입, 실용화와 신기술 개발 및 각종 기술정보의 교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모든 노력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업계가 필사즉생의 각오로 굳게 뭉쳐 위기탈출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각기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다보면 함께 공멸할 수도 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지혜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다.

이러한 구조개선 노력의 극대화, 협업화를 위해 조합·협회등 경제단체는 공동의 이익을 선도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정부는 중소기업 안정 자금의 실질적 신용여신 확대로 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하고 세율을 조정하여 각종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종합적이며, 집중적인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정부·산업계·노동계 모두가 한데 어우러질 때 우리의 기업은 허튼어진 터널을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을 것이다.

3. IMF 脫出 基本課題는 Dollar·企業資金·雇傭俞出

IMF과급영향은 산업에는 물론, 사회활동, 가정생활에 까지 미치고 있어, 과연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 지 정책당

국자나 정책입안연구기관에서도 갈피를 잡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핵심과제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으로 위기사태의 능력있는 해결의 키는 바로 여기에 성패가 있다고 본다.

IMF탈출의 기본과제를 생각할 때, 첫째, 외환, Dollar의 대책

둘째, 국내기업의 자금경색 해결

셋째, 고용창출 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IMF사태 발생 6개월이 넘는 현시점에 있어, 은행의 수출입창구나, 기업들의 자금압박, 흑자부도사태의 속출, 노동계의 주장을 결부하여 보면 IMF 탈출 기본과제가 제대로 지표설정과 시행에 미흡하지 않았는가 생각되어, 더욱 촉구하는 견지에서 강조하고자 한다.

외환, Dollar 대책은 외화를 벌어드리는 일과, 외자를 유치하는 일인데, 외화를 버는 일은 수출이, 그리고 외자 유치는 우리 한민족 우리나라의 가능성에 대한 신임도가 좌우할 것이며, 기업은 자금이 있어야 기업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기업활동은 곧 고용을 필요로 하는 것임으로 이 세가지만 해결하면 IMF 이전상태로의 복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 궤도로 회복시킨 위에서 제2의 도약을 출발시켜야 한다.

4. IMF克服 經濟 回生 汎國民 運動 展開 必要

국난위기로 불리우는 IMF극복에는 온 국민에게 비상한 고난을 주게 됨으로, 어떤 적절한 정책과 처방을 시행한다 해도 정부 각 부처 모든 공무원과 정치권과 노동계, 학생 및 전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하며, 이 난국을 인내하고,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협력하고 노력하여 경제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결의 아래 한데 뭉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IMF극복 경제회생 범 국민총합운동을 민·정(民·政)합일로 전개하여야 한다.